

# 2025 김포예술활동지원사업(활동지원/문학)

## 심의 총평

2025년 김포예술활동지원사업 문학 부문에는 예년보다 많은 지원자가 응모하였다. 저력 있는 문학 인구가 늘어나서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예술적 역량을 축적한 중견과 원숙한 예지의 언어를 운용하는 원로들, 개성 있는 어법의 신인들이 공존하고 있었고, 이들이 동인 활동을 통해 상호교류를 하면서 문학적 돌봄을 얻어나가고 있었다. 문인들이 다년간 꾸려온 매체들을 중심으로 문화적 인프라가 조성되면서 좀 더 다양한 세대와 장르가 수혈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했다. 시, 소설, 수필, 그림책, 동화, 디카시 등에서 매력적인 기획들이 눈에 띄어 반가운 마음으로 심의를 진행했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들에게 지역문화재단에서 수여하는 활동지원금의 무게는 가볍지 않다. 한정된 예산을 배분하여 지원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고심이 깊었다. 심의위원들은 개성과 내공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지역예술이자 한국문학의 자원으로 지원작들이 지닌 개개의 가치를 살폈다. 그중 상상력과 현실성, 새로움과 전통, 작가의 색깔과 독자와의 교감 사이에서 일정한 성취를 보여주는 작품들을 추려나갔다. 그 결과 주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심미적 성과를 보여온 문인들 중 지원서에 본인의 활동 이력과 발간 계획을 성실하게 작성한 분들이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부분 작가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작품의 완성도와 수월성을 지켜온 분들이었다. 또한 시민이 문학예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다양한 교감의 자리를 마련한 문인들의 지원서도 눈에 띄었음을 밝혀둔다. 기성의 문학장을 통과하지 않고도 독립출판이나 번역을 통해 자기 몸집을 불려온 신진들의 기세도 존중하였다. 그 외 도농의 경계에서 다양한 문학적 소재를 발견하여 사회적 상상력을 작동시키는 작품들, 문화소외지역에서도 꾸준히 미적 공통감각을 일궈나가며 정서적 결연을 맺어나가는 매체들에도 주목하면서 심의위원들은 폭넓은 토론을 이어나갔다.

논의를 거듭하여 예정된 선정 건수보다 더 많은 8건의 지원작을 선정하였다. 형평성을 고려하여 장르를 적절히 안배하고, 가급적 기존의 수혜자들을 제외하여 최대한 공정하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다만 지역문인들과 호흡하며 김포문학의 외연을 넓혀나가는 매력적인 동인지의 경우, 연속지원을 통해 그 문학모임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했다.

작년까지는 지원서에 기술된 사업기획을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지원자들이 쓴 작품을 함께 검토하며 창작자들의 집필 역량을 좀 더 세심히 살피고자 했다. 아쉬운 것은 지원자들이 공들여 쓴 작품을 검토할 시간이 사전에 좀 더 여유 있게 주어지지 않았던 점이다. 또한 본 지원사업의 심의항목이 문학예술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다는 점도 안타까웠다. 일정 기간 수행을 완료해야 하는 프로젝트 중심의 타 예술과 심의기준이 동일하게 주어져서 현재의 심의항목으로서는 텍스트로서의 질적 측면을 비중 있게 논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작품 내용’과 ‘창작자의 역량’, ‘기대효과’ 등의 평가 비중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차후에는 문학 분야 심의 기준이 조정되었으면 좋겠다.

선정된 지원자들에게 축하를 드리며, 지원 액수의 제한으로 선정되지 못한 지원자들에게는 송구함과 아쉬움을 전한다. 아울러 김포문화재단의 본 지원사업이 다양한 예술을 환대하고, 지역문학의 존재 이유를 납득시켜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